

지하철역별 실제 수요와 예측된 수요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민하루*, 김세용†

초 록 막대한 자원과 오랜 건설 기간이 투입되는 국내 도시철도 사업의 수요예측 정확도가 낮아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수요예측을 과대·소하게 추정하는데다 철도사업의 사업성 검증이나 수요예측의 정확성 여부는 5년에서 10년 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어떤 요인이 실제 수요와 예측된 수요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내서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의 노선이라 할지라도 역별로 수요예측 정확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별 예측치의 정확도를 높여서 전체 노선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9호선을 대상으로 지하철역별 다양한 역세권 특성이 순수수와 수요실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향후 교통사업과 지하철 수요예측에 정확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kksy@korea.ac.kr)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